

2024.01.12

특강 (주)퍼즐벤처스 CTO 김태성

김태성 : k.taerry@gmail.com

cs역량을 보유하신 분

생태계에 익숙하신 분

-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
- 명확한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

프로젝트를 경험해보신 분

-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

이력서

-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 (PDF, Notion, 링크드인)
- 간단하게 내가 이런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보여주는 것

포트폴리오

-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혹은 작품집 (PDF, Notion, Blog, 구동중인 서비스, GitHub)
- 이력서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걸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주는 것

구체적으로 기술역량을 회사에서 요구한다. 미리 알아보자

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적는게 아니라, 평가자가 보고싶은 내용으로 구성해야함

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까

- 회사와의 직무 적합성
-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=> 공고문을 자세히 보자
- 실용적으로 당장 내가 활용 가능한 기술 협업 내용들
- 문제 해결 능력
- Blog => 단순한 정보 글이 아닌 본인이 겪은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
- 성장에 대한 의지
-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흔적!
- 개발에 즐거움을 느낀다. =>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(진정성)

회사 채용담당자 입장에서 보는 노력한 포트폴리오

- 1. 지원 회사에 맞춤형 포트폴리오 작성하기
 - 1.1 회사를 기준에 따라 리스트업 해보자 (연봉, 복지, 사내문화, 비전 등)

- 2. 기존 프로젝트 개선 해보기
 - 특히 부트캠프는 출신은 차별화가 필요하다.(다 같은 커리큘럼 포트폴리오가 비슷하다.)
 - 새로운 기능 추가하기 (기획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음)
 - 부트캠프 수료 후에도 시간과 노력을 들인게 보여야 한다.
- 2.1 개선할 포인트
 - 코드 개선하기 (기존 사용했던 기술의 보완점을 제시)
 - 코드 리팩토링을 통해 성장 했음을 보여줌)
- 3. 포트폴리오 뜯어보기
 - 3.1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페이지로 만들어보자 (차별성, 자신이 한 것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쏟는 사람이구나로 보임)
 - 자신이 한거 어필, 시연영상, 기능소개(시간이 짧아 기능을 기대하지는 않는다.),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어필이 더 중요, 그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와 필요성 느낀점,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봤다는 증거
- 4. 스타트업일 수록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. (역량은 당연한 것)
 - 포트폴리오에 본인이 살아온 과정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해 본 경험들 성향이 궁금할 수 있다. 긁어주자.
- 5. 그 회사의 서비스를 분석해보자
 - 회사의 앱이나 웹이 어떤 **api**를 긁어와서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
 - 아키텍처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역추적을 해서 살펴보자
 - 포트폴리오를 보면 진정성이 느껴짐
 - **api**구조, 분석, 문제점, 본인 생각, 궁금한 점 등등
 - 문제점을 해결해보기 위해 서비스를 구현해봤다.
- 6. 회사에 맞추어서 특정 회사 이름을 언급하는 프로젝트
 - 확실히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다.
 - 채용공고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본인의 노력 (가설을 세우고 진행해보자)

개발자들이 막상 본인이 개발을 한 서비스를 본인이 잘 사용하는 걸 주변에서 보지 못했다.
 나는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데 기여를 한 서비스를 기획하자는
 취지였기에 내가 더 사용한다.

질문:

스타트업을 차리시 게 된 동기와 계기

사업화를 처음시작하셨을 때 만났던 어려움과 해결했던 방법

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식으로 시작을 했는지

답변:

일찍 프로그래밍 시작함

남들보다 빠르게 만들기 시작함 외주를 따서 돈을 벌기 시작했음

좋은점 -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듣게됨

국가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들음 (대학 3학년)

거기서 우승함

그 때 창업을 생각하게 됨 대학교 4학년

다 알아먹음 (기술에 자부심이 있어 다 만들수 있다 생각했다.)

아키텍처나 개발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다보니 쓸데없이 기술을 할 줄 안다는 생각으로
서비스로 생각하지 않고 개발만 하다보니까 망했다.

또 프로세스에 몰두해서 일을 잘해보려 그런 회사 프로세스(방법론)에 치중해서 개발을
하는데 시간을 많이씀

최소한의 룰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많이하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
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추가로 하는게 시간을 아낀다 생각한다.

주변 지인의 합류건의로 현재 합류하게 됨